

주요국의 LIBOR 대안금리 채택 결과

- 세계 주요국에서 LIBOR(London inter-bank offered rates)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금리 선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, 최근 미국과 영국은 LIBOR 대안금리를 최종 채택
- LIBOR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여전히 지표금리로 사용 중에 있어, 최근 각국에서 선정한 새로운 기준금리 정착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

- 세계 주요국에서 LIBOR(London inter-bank offered rates)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금리 선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, 최근 미국과 영국은 LIBOR 대안금리를 최종 채택
 - 2012년 LIBOR조작 사건 발생이후 LIBOR 산출 방식의 보완 또는 대체기준금리 정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실정
 - LIBOR는 영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단기신용거래(통상 6개월) 금리조건으로, 국가 간 캐리트레이드, 파생상품 등의 기준점으로 사용¹⁾
 - 전 세계적으로 LIBOR의 사용이 광범위해지며, 실제 거래금리의 사용이 아닌 예상금리를 사용하는 LIBOR의 특성상, 해당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보고를 할 가능성과 금리 산정기관이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이 아닌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
 - 영국의 Barclays를 비롯한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LIBOR 산출에 활용되는 차입금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포지션으로 임의조작 제출하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미국 및 영국정부로부터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은바 있음
 - 2014년 이후 각국의 금융당국은 FSB(금융안정위원회, Financial Stability Board)의 조율 하에 향후 2년간 LIBOR 대체할 수 있는 이른바 ‘risk-free reference rates’를 개발·선정하기로 합의
 - 이에 따라 미국, 영국, 유럽, 일본의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금리지표로서 LIBOR를 대체 할 수 있는 새 기준금리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 설립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, 최근 새 기준금리 채택을 완료
 - 미국은 지난 2014년말 대체 기준금리 도입을 위하여 15개의 글로벌 금융회사와 결제기관 등으로 구성된 미국 대안금리위원회(ARRC: Alternative Reference Rates Committee)를 설립하고 수년간의 논의 끝에 올해 6월 국채일반 레포금리(Broad Treasuries repo financing rate)를 LIBOR 대안금리로 최종 확정

1) 시중은행들이 신용차입 추정금리를 영국은행연합회에 제출하면 상·하위 25% 값을 제외한 나머지 금리값을 토대로 LIBOR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적 흐름을 판단하는 지표로도 사용

- 영국 또한 2014년 7월 대체금리 선정을 위한 위원회²⁾ 설립하였으며, 올해 5월 무담보익일조달금리(SONIA: Sterling Overnight Interbank Average Rate)를 선정

□ 각국의 새 기준금리는 지표의 안정성과 시장 유동성을 최우선 조건으로 선정되었으며, 유럽과 일본 또한 비슷한 절차를 통하여 대체금리 선정을 논의중

- LIBOR 조작 이후 신뢰도 하락으로 인하여 새 기준금리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산출방법이어야 하며 유동성, 거래량, 규제 변화시 대응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각 위원회의 방침
 - 대안지표금리의 선정은 지표 자체의 유동성과 거래량 등과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IOSCO³⁾의 원칙을 만족하는 신뢰성과 지표 산출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제 사용이 용이한가에 대한 평가 항목을 만족해야 함
- 또한 기존의 LIBOR처럼 조사대상 은행의 예상을 기초로 금리산정을 할 경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를 통해 산출한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
 - 미국의 대체금리인 국채일반 레포금리(Broad Treasuries repo financing rate)는 미국 repo 시장 참여도와 규모 등을 감안할 때, 거래량과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
 - 영국은 위원회 구성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무담보 익일조달금리(SONIA)를 기준금리로 선정하였으며, 미국의 레포금리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선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
 - 유럽의 Secured Benchmark Indices Joint Task Force는 당초 파생상품시장을 중심으로 사용중인 유로존 단기 금리(EONIA: Euro OverNight Index Average)와 Euribor를 기준금리로 고려하였으며, 최근 스트레스 테스트와 규제 변화 시 대응력 등에 대한 평가 진행 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할 계획

주요국의 LIBOR 대안금리 선정 결과

	위원회	선정(고려중) 대안금리
미국	Alternative Reference Rates Committee	Broad Treasuries repo financing rate
영국	Working Group on Sterling Risk-Free Reference Rates	SONIA(Sterling Overnight Interbank Average Rate)
유럽	European Money Market Institute	- EONIA(Euro OverNight Index Average) - Euribor
일본	Study Group on Risk-Free Reference Rates	TONIA(Uncollateralized Overnight Call Rate)
스위스	National Working Group	SARON

2) Working Group on Sterling Risk-Free Reference Rates

3) 국제증권감독기구(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)

- LIBOR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여전히 지표금리로 사용 중에 있어, 최근 주요국에서 선정한 새로운 금리 정착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
- 미국의 경우 최종 심사 보고서 발간 후 새로운 지표금리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으나, 기존의 LIBOR 금리를 대체 적용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
 - 유럽과 일본 또한 새 기준금리 선정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, 향후 각국의 Libor 사용 중단 이후 기준금리 불연속성과 안정적인 시장 적용 등에 관한 보완책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

연구원 표영선